

농촌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간계획 방향 연구

- 경기도 양평군 광탄리 용문지구 문화마을계획을 중심으로 -

임승빈 * · 조순재 ** · 박창석 *** · 이춘석 *** · 복준호 ****

*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 ** 농촌생활연구소 주거환경연구실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 ****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A Study on the Planning Alternatives fo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of the New Rural Village(the YoungMoon Project Site)

Im, Seung-Bin * · Cho, Soon-Jae * · Park, Chang-Sug ***

Lee, Chun-Seok *** · Pok, Joon-Ho ****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l Univ.

** Rural Living Science Institute

*** Graduate School, Seoul Nat'l Univ.

ABSTRACT

For the improvement of the cultural rural village(new rural village project), it is very important to find the various planning alterna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deas which are able to be applied to the rural site planning. The YoungMoon project site located in Kyunggi province was selected case study.

The followings are suggestions developed in the process of preparing an alternative plan for the case study. 1) The preparing of the rural site plan is the organizing process of the planning ideas responsive to the condition of both a project site and the project directions. 2) In developing the schematic plan, it is very useful to introduce the cluster *madang* (small public open space) including 25 houses as a basic planning unit. 3) In comparison with the project plan, the alternative plan presented by this study has advantages of amenity and public space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new rural village.

It is properly said that we have to more and more discuss the best solution to take in planning the rural site, and this efforts contribute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new village project.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농촌지역의 주택 노후화와 공·폐가의 증가, 공공편의 시설의 질적 저하 등의 열악해진 생활환경과 생산기반의 악화는 농민들의 탈농과 농촌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의 농촌생활환경 개선은 도시화, 현대화된 생활양식을 수용하여 혼주화된 거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마을의 공간적 재편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1991년부터 시작된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현대적인 생활여건을 지닌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서비스 지점취락으로서의 중심마을을 육성하고 인근도시 주민의 유입장소로서 농촌을 개발하고자 하였다(이,1996).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지역사회의 활성화와 기존 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대적인 마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에도 기존 농촌마을의 역사·문화, 생태자원의 고려가 부족하고 도시생활위주의 주택 및 공간구조에 치우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농어촌진흥공사,1997).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 농촌마을의 역사문화, 생태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활용이 요구되고 문화마을 등의 신촌형 마을공간계획에 대한 대안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촌형 농촌문화마을의 공간계획의 질적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용문지구(문화마을)를 사례대상지로 선정하여 현황조사에서부터 개발방향설정, 기본구상, 계획 및 설계의 전체 과정을 수행하였다.

II.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신촌형)으로 조성된 용문지구를 사례대상지역으로 하여 현황조사와 용문지구 조사·평가를 토대로 대안적인 농촌주거지 공간계획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의한 기존계획과의 비교평가를 위해 신촌형의 개발방식(독립형;임외,1996)을 전제로 기존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부지위치와 사업면적, 공동시설 등을 동일하게 하였으며, 문화마을사업

에 의한 계획안과 본 연구에 의한 계획안을 각각 '기존계획(문화마을사업의 계획)'과 '대안계획(본 연구에서 도출된 계획)'으로 구분하였다. 생산공간 정비계획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황조사는 물리·생태적 환경, 인문·사회적 환경, 경관현황 등에 대한 조사로서 대안계획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에 해당되며, 기존 용문지구에 대한 평가(용문지구 주민의식조사와 기존계획안 평가)는 대안계획의 방향 모색에 활용된다. 현황조사와 기존계획안 평가는 1996년 9월에서 1997년 2월까지 현장조사(4회)와 이장 및 관계기관(군,리사무소)에 대한 방문조사(2회)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주민의식조사(1997년 2월)는 용문지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기입방식에 의해 거주가구의 86.9%¹⁾가 조사되었다.

III. 농촌마을 관련사업(계획) :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취락구조 개선사업

농촌마을 관련 사업(계획)은 1950년대의 지역사회개발사업(CD 사업)에서부터 시범농촌건설사업, 새마을사업, 취락구조개선사업, 소도읍개발사업, 취락지구개발계획,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으로 전개되어졌다. 이 중에서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마을관련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내무부)과 문화마을 조성사업(농림수산부)은 각각 주관 부서의 행정지침에서 농촌주택개량촉진법(1995년)과 농어촌정비법(1994년)으로 법제화되어 사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즉, 농촌주택개량촉진법에서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을 마을단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수용하였으며, 이외에도 농어촌주택조합의 설립과 빈집의 정비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황, 1996).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기초하게 되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기존자연마을을 대상으로 20호 내외의 사업규모로 추진되어져 부분적인 주거지 정비에 국한되고 농촌공간구조 재편을 위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문제점

1) 1997년 2월에 용문문화마을에 거주하는 총 가구 수는 99戶로서,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3개 필지에 대한 입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설문조사율(89.1%)은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86戶를 총 거주가구수인 99戶로 나누어 산출한 것이다.

이 지적된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정주생활권계획서의 중심마을에 100호 내외의 사업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형 마을공간구조로서는 다소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농경지 편입율이 평균 60%로 높고 신촌형 외의 다양한 개발유형의 개발과 더불어 생산기반사업과의 연계부족이 지적되고 있다(농어촌진흥공사, 1997). 농촌문화마을 계획시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형 마을공간구조 계획기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사례연구에 해당된다.

IV. 농촌문화마을 대안계획 도출 : 용문지구 사례연구

농촌마을계획은 계획방향과 공간구조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 및 설계안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므로 용문지구에서도 개발방향과 공간구조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때, 개발방향은 기존환경 현황조사와 용문지구 조사·평가에 기초하여 설정한다.

1. 용문지구(광탄리)의 현황조사

용문지구는 현황은 기존환경의 현황조사와 용문지구 조사평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용문지구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에 위치하며, 서울과 횡성을 잇는 6번 국도에 인접하여 위치한다(그림 1) 참고).

가. 기존환경 현황조사

① 물리·생태적 환경 : 용문지구 대부분이 경사 3%이하의 평탄지(대부분 田畠으로 이용)로서 절·성토 등이 미미하고, 남쪽면이 개방되어져 일조조건이 양호하다. 용문사업부지는 田畠의 경작지(남북면)와 기존마을(동쪽면), 松林(서쪽면)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동쪽면에 면하여 하폭 약 2m인 소하천이 있다.

② 인문·사회적 환경 : 광탄리는 정주생활권개발계획에서 주거와 기초서비스기능을 제공하는 기초중심마을로서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측되고 유명산 자연휴양림, 용문산 등이 인접하여 발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1986년에 비해 문화마을 사업전인 1995년에는 약 7.7% 증가한 225戶로 나타났다.

③ 경관현황 : 용문산과 중원산과 흑천(黑川), 주변 구릉지 등에 의해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의 경관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나. 용문지구 조사 및 평가

① 주민의식조사 : 용문지구에 대해 전체적인 주거환경은 다소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으나,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에 대한 불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원농촌주거지로서 조성을 위한 필요사항으로 중앙공원(녹지)의 설치와 공동휴식공간(정자목공간), 소규모 경작지(텃밭 등)의 도입, 마을순환산책로의 도입, 생활타리, 자연재료를 이용한 담장 도입이 30%이상의 응답율[=(해당항목 응답 수/총 응답자 수)×100]을 보였다(표 1).

② 기존 계획안 평가 : 용문지구(기존계획)는 격자형의 주거패턴으로서 농촌전원주거지로서의 이미지가 다소 부족한데, 이는 주민의식조사에 기초한 용문지구의 농촌성(농촌적인-도시적인)과 자연성(자연적인-인공적인)에 대한 이미지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표 1) 참고). 공동시설에서 공동작업장은 주차장 등으로 주로 활용되어 중심활동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고, 공원과 운동장 등이 사업부지 외곽에 분산 배치되어져 낮은 주민 이용율의 원인이 된다.

2. 용문지구의 계획방향 및 공간구조 기본구상

가. 용문지구 계획방향 설정

용문지구의 계획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이는 용문지구 대안계획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공동시설의 경우 기존계획안의 계획지표를 전체로 하되, 마을회관, 노인회관은 주민요구에 의해 신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여 추가시설로서 계획하였다²⁾

① 기존 역사문화, 생태자원의 적극적 활용 : 광탄리에 풍황정, 태승정, 노송림, 용문산전투전적비, 松林(기존 수림)

2) 마을회관의 계획면적은 약 145㎡으로, 노인회관은 48㎡으로 설정하되(농촌생활연구소, 1996), 대안계획에서는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을 복합용도 건물로 계획하였다.

〈표 1〉 기존 현황조사 및 용문지구 평가·분석

구분		조사결과	
기존 환경 현황 조사	물리·생태적 환경	지형·지세	·사업부지는 75-80m의 표고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남서면의 일부(3-8%)를 제외하고 대부분 3%미만의 경사도를 보임.
		기후·기상	·연평균 기온(1990-1995년)은 10.85℃이고 평균강우량은 1433.3mm인 전형적인 중부지방의 기후를 나타냄. 흑천 등에 의한 하천범람위험은 없음.
	인문·사회적 환경	정주체계	·기초생활권상의 중심마을로서 기초서비스기능과 주거기능을 설정함(양평군,1991).
		인구·가구	·1986년에 비해 1995년에 가구 수는 다소 증가하나 가구원 수는 감소하고 있음. [1986년(209戶, 846人)-1995년(225戶, 743人)]
		토지이용현황	·사업부지의 지목별 현황은 田畠이 50,535㎡이고 대지가 1851㎡, 도로 및 溝渠가 3614㎡으로 나타났음. 30년 이상된 기존 가옥 3동과 공동이용건물 1동이 포함됨(농어촌진흥공사外,1993). 광탄리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로 지정되어져 있음.
		문화재 및 공동시설	·용문지구내에는 문화재, 향토유적 등은 존재하지 않음. 광탄리에는 마을회관, 노인정, 마을마당, 마을창고, 농기계창고 등과 風凰亭, 澤升亭, 노송림(園林), 용문산전투전적비 등이 위치하고 있음(〈그림 1〉 참고).
	마을공간구조와 마을역사	·1777년 繁村을 형성하였고, 1908년 상탄리와 하광탄리가 광탄리로 통합됨. 구만리, 옷넓은 여울, 골말, 중터말, 주막거리, 양지마을, 터양지, 고래개울말 등의 다양한 공간영역으로 구성되어짐.	
경관현황		·용문산(1157m)과 중원산(799.8m)을 잇는 산맥과 흑천(黑川)이 중요한 경관요소로서 기능하여 背山臨水의 경관구조를 형성함. 양평-홍천 준고속도로는 시각적 차폐물로서 기능함(〈그림 1〉 참고).	
용문 지구 조사 및 평가	주민의식 조사	용문지구 이미지 및 만족도	·농촌성(도시적인-자연적인)과 자연성(자연적인-인공적인)에 대해서는 각각 2.94의 값을 보였음. 전체적으로 주거환경에 대해 다소 만족하였으나, 마을회관과 노인회관, 상업시설의 이용, 부속사 규모 등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족하였음.
		전원농촌주거지로서의 필요사항	·중앙공원(녹지)의 설치와 공동휴식공간(정자목공간), 소규모 경작지(텃밭 등)의 도입, 마을순환산책로의 도입, 생울타리, 자연재료를 이용한 담장 도입이 30%이상의 높은 응답율을 보였음.
	기존계획안 (용문문화 마을사업 계획안)	토지이용계획	·용문지구의 개발면적은 64,950㎡(103호 계획)이고 호수밀도는 15.9호/ha로 나타났음. 주택용지가 59.9%(33,451㎡), 도로 및 보도가 25.9%(14,513㎡) 등임.
		공간구조계획	·격자형의 공간구조 패턴을 보이고, 진입부에 공동작업장, 농기계수리센터, 보관창고 등이 위치함. 중앙부분에 근린생활시설(4필지)이 입지함. ·공동주차장이 용문지구 좌우에 각각 배치되어져 있으며, 기존마을의 취락지구개발계획에 따른 도로망을 기준으로 서로 연결되도록 도로망을 계획함.

* : 기존현황조사는 용문지구를 포함한 광탄리를 대상으로 하되 용문지구 평가는 용문지구만을 조사하였음. 구체적으로 지형·지세는 현장조사와 컴퓨터 [Landcadd(Rel12)]를 이용하였고, 인구·가구, 토지이용, 문화재 및 공동시설, 마을공간구조, 마을역사, 경관현황 등은 현황조사, 관련 자료조사, 관계기관 방문 등에 기초하여 조사하였음. 특히, 주민의식조사에서 이미지와 만족도는 5점 척도로서 조사하였는데, 이미지에서 도시적인(1)-농촌적인(5), 자연적인(1)-인공적인(5)을 부여하였음. 전원농촌주거지로서의 필요사항은 12개 항목(기타 포함)에서 3개를 선택하도록 하고 응답율을 산출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결과는 농촌생활연구소(1997)를 참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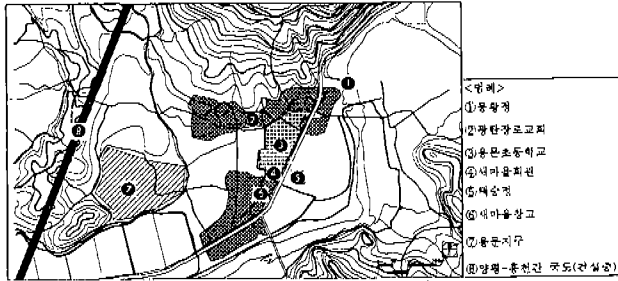
** : 현황조사항목의 선정에서는 농촌마을계획의 목적과 정비수준, 환경조건 등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현황, 농업여건, 주택입지 및 형태 등이 포함되어질 수 있음.

등의 다양한 역사문화, 생태자원이 분포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구마을간의 사회적 교류를 강화하도록 계획한다. 또한 일조를 고려한 주택배치를 비롯하여 소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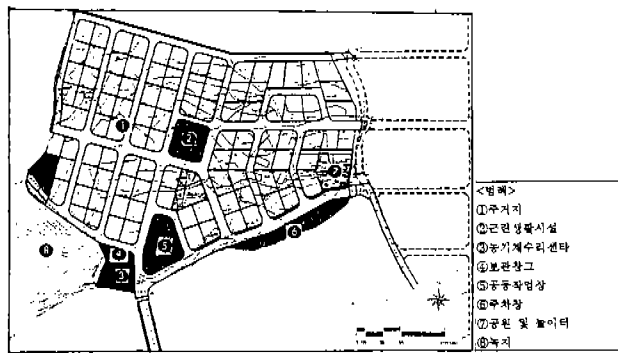
등 생태자원을 고려한 다양한 '지속가능한 설계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② 전원농촌마을 이미지 강화 : 농촌문화마을의 전원성

3) 지속가능한 설계는 인간이 자연생태계의 구성요소라는 인식하에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여 생물학적 다양성과 환경적 통합성을 유지한다는 설계이념으로 단지설계, 조경설계, 건축설계 등이 친환경적 설계가 되도록 하는 설계를 의미한다(양,1995).



〈그림 1〉 광탄리 토지이용 및 공동시설현황.



〈그림 2〉 용문지구 기존계획(문화마을 조성사업).

과 농촌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공동시설 체계화와 이용 강화를 위해서는 공동휴식공간(주거군마당)과 마을쉼터(중앙공원) 등의 공동공간을 공간구조 기본구상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고려하여야 한다. 가로녹지대의 도입을 검토한다.

③ 공동공간의 체계화 및 기능의 강화 : 보행자도로도 도입과 공공시설의 집중화를 통해 공동시설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주민활동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공동공간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용문지구 공간구조 기본구상

용문지구 대안계획의 공간구조는 공동휴식공간과 중앙공원(마을쉼터) 등의 공동공간을 중심으로 구상하도록 한다. 이때, 농촌마을내 공동공간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촌형에서는 마을쉼터, 어린이놀이터, 공동마당 등을 공동공간으로 보고, 정비형에서는 마을쉼터, 공동마당 외에도 기존 농경지, 텃밭 등을 공동공간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례(농어촌진흥공사,1994;이,1995;임 외,1996) 등을 고려하여 공동공간을 주거 규모별로 소규모 휴게시설, 공동휴식공간(주거군마당), 마을쉼터(중앙공원), 마을입구광장 등으로 설정하였다(표 2). 그리고 '25호 주거군'을 기본주거단위(cluster)로 보아 공동휴식공간(정자목공간)을 공간구조 기본구상에서의 기본계획단위(basic planning unit)로 설정하였다. 마을쉼터는 중심시설공간(마을회관, 노인정 등)과 부대시설(농기계수리센터, 농기계보관창고 등), 마을놀이마당 등과 연계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용문지구 공간구조 기본구상은 공동마당과 진입광장의 배치에서부터 출발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

〈표 2〉 주거단위 규모별 공동공간 설정

구 분	규모기준	주거단위규모별 공동공간		비 고
		생활공간	생산공간	
주 호	1호	담장, 대문	개인텃밭	
6호 주거군	약 6 호	마당, 평상 등 소규모 휴게시설	공동텃밭	核空間을 형성하는 단위주거군(임 외,1996)
25호 주거군	약 25 호	공동휴식공간(주거군마당)		용문지구 공간구조 기본구상에서 기본계획단위로 설정함. 4개의 핵공간이 모인 단위
농촌마을(문화마을 등의 신촌형 마을)	약 25 호	마을쉼터, 마을놀이마당, 중심시설공간(마을회관, 노인회관 등), 마을순환산책로, 마을진입광장	부대시설공간(공동창고, 농기계창고 등)	마을쉼터(마을놀이마당 포함) 등을 농촌마을의 중심공동공간으로 설정함.

* : 마을쉼터를 중앙공원(녹지)이며, 이를 마을놀이마당과 중심시설공간, 중심시설공간 등이 연계시켜 집중배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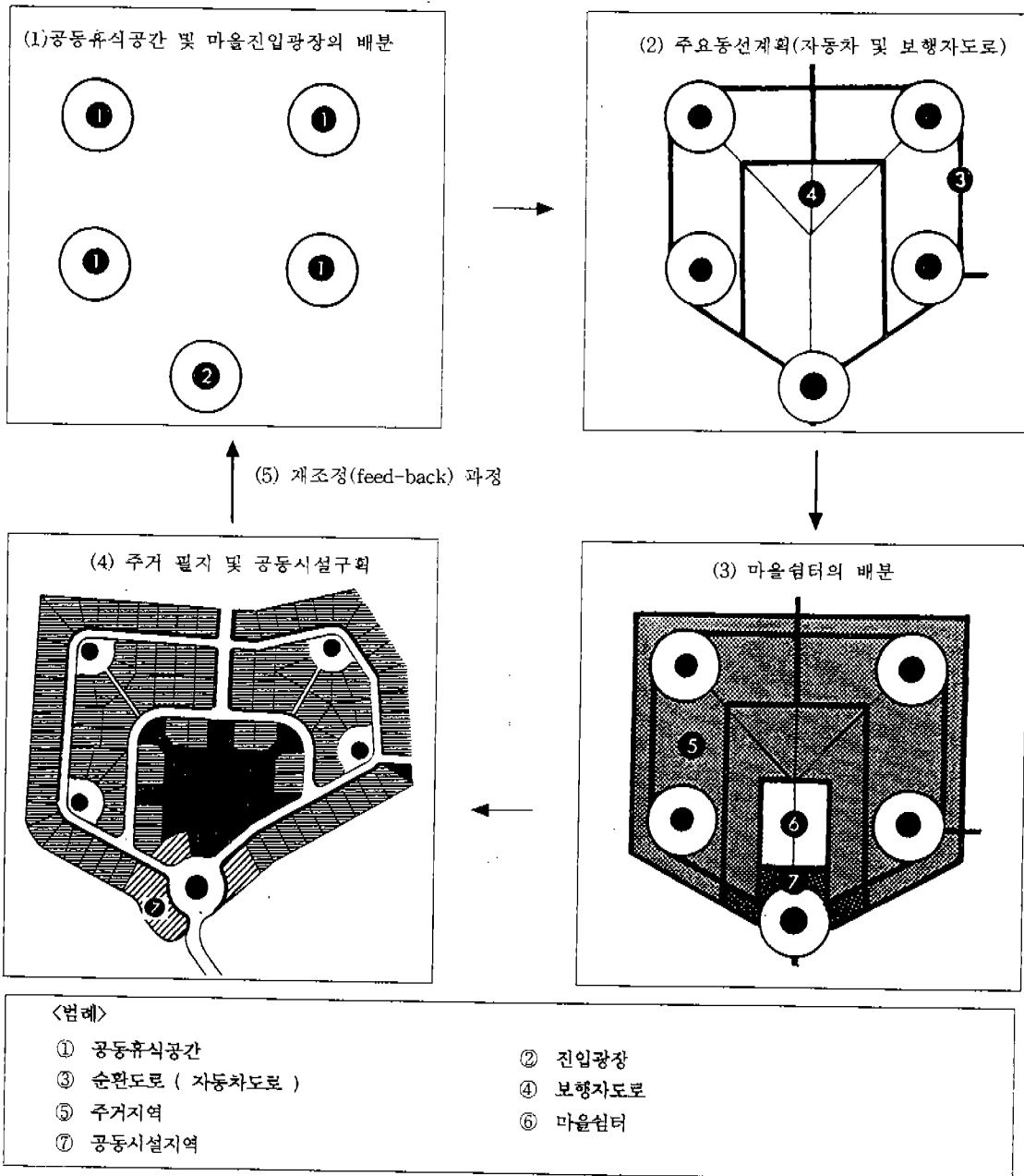
치게 된다(그림 3).

① 공동휴식공간(주거군마당) 및 마을진입광장의 배분 : 각 '25호 주거군'에서의 공동휴식공간에 대한 고른 접근성을 부여하도록 '25호 주거군' 규모를 고려하여 등간격으로 배치하고, 마을진입부에 진입광장을 위치시킨다. 구체적으로 4개의 공동마당과 1개의 진입광장을 계획하였다.

② 주요 동선계획(자동차 및 보행자도로) : 공동공간의

체계화를 위해 주요동선인 자동차도로와 보행자도로 등을 계획한다. 자동차도로와 25호 주거군의 공동휴식공간을 결합시켜 회전로터리 기능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③ 마을쉼터 배분 : 마을진입부와 마을중앙부의 관계, 공동마당과의 연계성, 주민접근성, 주거군의 배분계획 등을 고려하여 마을쉼터를 위치시킨다. 마을쉼터를 마을진입광장에 인접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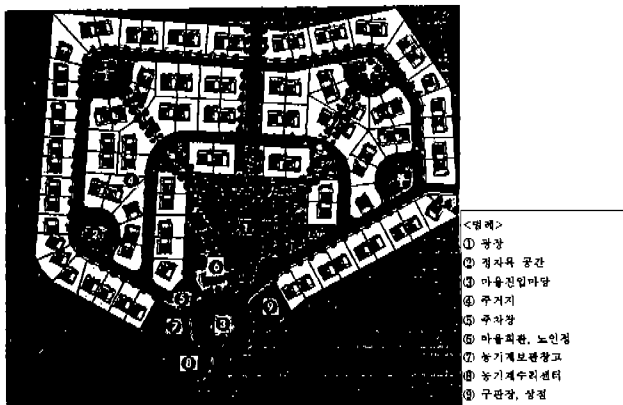
<그림 3> 공동공간을 중심으로 한 공간구조 기본구상.

④ 주거필지 및 공공시설 구획 : 각 주거 필지와 공동 시설의 규모와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도로 및 보행자도로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한다. 단위주거필지는 100평 이상이 되도록 고려한다.

⑤ 재조정(feedback)과정 : 주거필지 및 공동시설 구획, 도로 설계과정에서 공동휴식공간, 마을쉼터 등의 공동시설과 동선체계 등에 대한 재조정(feedback)이 이루어지게 된다.

3. 용문지구 대안계획 형성

용문지구 대안계획은 계획방향을 토대로 공간구조 기본 구상을 구체화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대안계획을 기초로 하여 농촌문화마을 계획시 고려되어질 수 있는 계획요소를 정리하였다(표 4). 용문지구 대안계획의 토지이용은 주거공간이 56.1%이고 공동시설공간은 20.1%, 도로는 23.8%(보행자 도로 5.6% 포함)로 나타났으며(그림 4), 전체적으로 방사순환형의 동선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4〉 용문지구 기본계획.

구체적으로 용문지구 대안계획안의 경우, 기존 역사문화, 생태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① 마을순환산책로 도입, ② 자동차도로의 최소화, ③ 일조를 고려한 주택배치, ④ 투수성 포장 등이 고려되어졌다. 특히, 자동차도로의 최소화와 투수성 포장, 일조를 고려한 주택배치 등은 지속가능한 설계 기법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자연지형의 활용, 공동텃밭의 설치, 지붕 및 벽면 녹화, 자전거도로, 우수 활용, 재생가능한 건축재료 사용, 쓰레기 재활용(유기물쓰레기 퇴비화) 등도 도입되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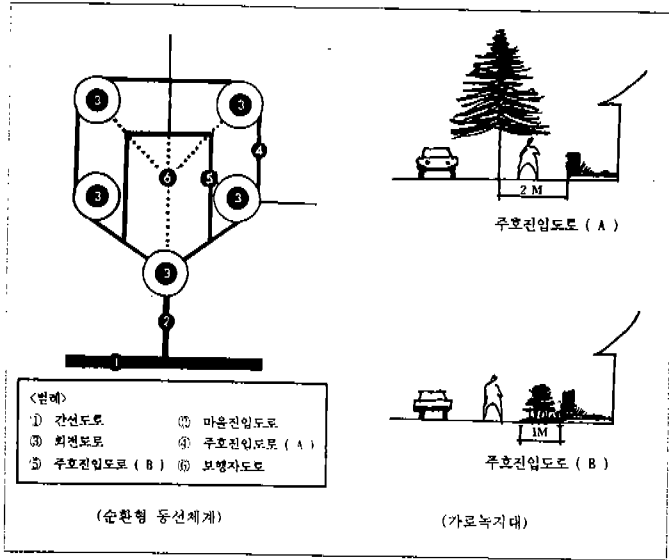
전원농촌마을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① 공동휴식공간(주거군마당), ② 마을쉼터, ③ 마을진입광장, ④ 가로녹지대, ⑤ 생울타리, 자연재료를 이용한 담장 등이 포함되게 된다. 공동시설의 체계화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① 공동휴식공간과 마을쉼터 등을 잇는 보행자의 도입과 ② 각 공동시설에 대한 주민접근성의 강화 등을 고려하였다.

용문지구 대안계획에서 제시된 ① 방사순환형 동선체계와 가로녹지대(green edge), ② 공동휴식공간(주거군마당), ③ 마을쉼터 및 마을진입광장 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방사순환형 동선체계와 가로녹지대(green edge) : 용문지구는 2개의 순환도로(제1순환도로:8m, 제2순환도로:7m)가 있고 마을쉼터에서 북쪽 경작지를 잇는 연결도로(8m)와 공동마당을 잇는 보행자도로(3m)가 계획된 방사순환체계(放射循環體系)를 형성하고 있다(그림 5). 제1순환도로(type A)는 차도(6m)와 인도(2m)를 가로수(지하고가 높은 교목)와 포장재료 및 패턴의 변화를 통해 시각적으로 분리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단차를 두지않아 주호로 차량이 진입할 때나 자전거, 휠체어 등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제2순환도로(type B)는 주택가 담장에 면하여 녹지대(1m:관목 혹은 소교목)를 통해 담장, 건물벽면 등 인공적 요소를 차폐하고 가로경관의 쾌적성과 자연성을 향상시킨다.

② 공동휴식공간(주거군마당) : '25호 주거군'의 중앙부이면서 제1순환도로의 결절점에 위치하여 주거군마당 및 휴식기능과 주택내 차량 출입 및 회전 기능이 모두 가능하도록 고려하였다(그림 6). 주거군마당의 일부에는 벽돌 등의 투수성 포장을 하여 마당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고, 회전도로의 중앙부에는 정자목과 더불어 평상, 벤치 등을 놓아 휴식공간으로 계획하였다.

③ 마을쉼터 및 마을진입광장 : 마을쉼터에서는 휴식, 운동 등과 마을의 행사, 집회, 농작업(農作業) 등을 위한 중앙광장이 포함되어지고, 마을회관과 노인정, 공동주차장 등의 중심시설공간 등과 직접 연계되어지도록 하여 마을쉼터의 이용율을 높이도록 계획하였다(그림 7). 마을진입부의 진입광장은 자연농촌마을의 입구로서의 상징성과 장소성을 표현하고, 회전도로로 조성하여 차량의 회전에 의한 차량



〈그림 5〉 순환형 동선체계 및 가로녹지대.

속도의 자연감소를 통해 교통안전성을 고려하였다. 마을진입부에 농산물판매장, 상점, 농기계보관창소, 농기계수리센

타, 창고 등이 배치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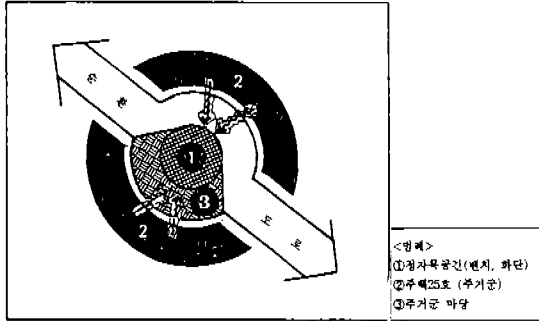
IV. 용문지구 대안계획과 기존계획의 비교·평가

용문지구 기존계획안과 대안계획안을 공간계획방향, 토지이용계획, 공간계획특징 등의 측면에서 비교·평가하였으며, 기본계획과 대안계획 모두는 신촌형의 농촌주거지 조성을 위한 사업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간계획방향 측면에서 대안계획은 전원농촌마을의 이미지 구축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공공구조 기본구상에서부터 마을쉼터, 공동휴식공간 등의 공동공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대안계획은 기존의 역사문화, 생태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설계기법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계획에 비해 용문지구 대안계획은 방사순환형 동선체계로서 보행자도로의 도입과 도로율의 감소, 공공시설용지 증가 등으로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고, 마을쉼터(부

〈표 3〉 용문지구 대안계획의 계획요소 및 계획내용

계획방향	계획요소	계획내용
기존 역사문화, 생태자원의 적극적 활용	마을순환산책로	· 신·구마을을 통합하는 마을순환산책로를 도입하여 마을의 사회적 교류와 장소성을 강화하도록 함.
	자동차도로의 최소화	· 순환형 동선체계를 구성하여 자동차 도로를 최소화함.
	일조를 고려한 주택배치	· 남향으로 주택을 배치하고, 주택의 전면에 활엽교목을 식재하도록 함.
	투수성 포장	· 공동주차장과 보행자도로, 가로녹지대 등에 투수성 포장을 하여 우수 등이 자연배수 되도록 함.
	자연형 하천	· 자연형 재료와 식재를 중심으로 환경친화형 하천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함.
전원농촌마을 이미지 강화	공동휴식공간 (주거군마당)	· '24호 주거군'의 중앙에 위치하여 휴게 및 마당 기능을 지니며, 순환형 동선체계에서의 주호진출입과 회전도로(Rotary) 기능을 포함하도록 계획함.
	마을쉼터	· 마을중앙에 위치하고 중심시설공간, 부대시설공간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이용율을 높임.
	마을진입광장	· 자연농촌마을의 입구로서의 상징성과 장소성을 표현하고, 회전도로로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속도감속을 통해 교통안전성을 고려함.
	가로녹지대 (green edge)	· 주택의 인공적 요소(건물, 창고, 담장, 주차장 등)의 노출을 완화하거나 가로와 보도의 완충공간으로 조성함.
	담장(생울타리, 자연재료 이용)	· 주택군단위와 주호진입도로 등을 고려하여 일정단위규모별로 통일성과 다양성을 형성하도록 함.
공공시설의 체계화 및 기능의 강화	보행자도로	· 공동휴식공간과 마을쉼터를 잇는 보행자도로를 도입하여 주민이용의 편의를 도모함. 이러한 보행자도로는 마을순환산책로와 연계되도록 고려함.
	주민 접근성 강화	· 공동시설 유형별로 주민들의 시각적, 물리적 접근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함.



<그림 6> 공동휴식공간 (주거군 마당: 정자목 공간).

대시설과 중심시설공간 포함)와 공동휴식공간(주거군마당)은 주민들에게 고른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다. 대안계획에서는 마을입구에 마을진입광장을 조성해 마을상징공간으로서 기능하도록 고려하였다. 그러나 기존계획안의 계획호수가 103호인데 반해 대안계획은 96호로 다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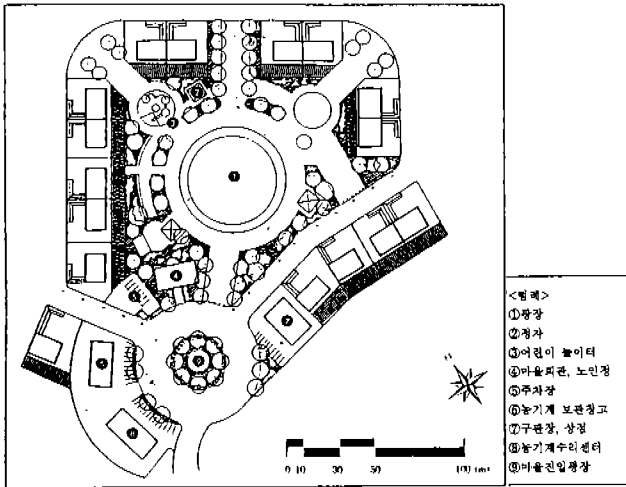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기존계획과 대안계획의 비교·평가를 통해 농촌문화마을에 대한 공간계획 개선노력을 통해 농촌문화마을을 보다 농촌적이고 전원적으로 형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개선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농촌문화마을의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공간계획을 위한 다양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지구인 용문지구를 사례대상지역으로 구체적인 대안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적용가능한 계획기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용문지구 대안계획은 기존 역사문화, 생태자원의 적극적 활용과 전원농촌마을 이미지의 구축, 공동공간의 체계화와 기능의 강화를 계획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계획방향의 실현을 위해 공간구조 기본구상과 실제 계획수립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1) 용문지구 공간구조 기본구상에서 공동휴식공간과



<그림 7> 마을쉼터 및 마을진입광장설계.

<표 4> 용문지구의 기존계획과 대안계획의 비교·평가 분석

구분	기존계획(문화마을 조성사업 계획)	대안계획(본 연구의 계획)
공간계획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의 존중→합리적 토지이용방안 강구 공동시설은 그 특성과 입지기반을 활용한 최대활용한 공간배분 토지이용 및 단지배치시 지역여건과 생활권을 고려하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역사문화, 생태자원의 적극적 활용→신·구마을 연계 및 지속가능한 설계기법 개발 전원농촌마을 이미지의 구축 공동시설의 체계화 및 기능의 강화
토지이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용지 : 59.7%(103호 계획) 도로용지(공동주차장1) 포함) : 32.1% 공동시설용지 : 8.2% 주택필지규모 : 58-175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용지 : 56.1%(96호) 도로용지(공동주차장,보행자도로 포함) : 23.8% 공동시설용지 : 20.1% 주택필지규모 : 100-155평
공간계획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자형 동선체계로서 농촌주거지로서의 특성이 뚜렷하지 않음.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통일성이 높아 공간구조 파악이 용이함. 분산배치된 공동시설간의 체계적인 연계가 부족함. 자동차중심의 도로체계를 보이고, 주택과 경작지 사이에 도로가 있어 도로에서의 개방감이 좋음. 농어촌소독원 개발계획으로 종합생산시설, 경지종합정비(경지재정리), 시설원예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비 확보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공간을 중심으로 기본구조를 구상하는 등 공동공간을 계획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고려함. 이를 위해 2호 주거군의 공동휴식공간을 기본계획단위로 설정함. 전체부지규모가 작아 공간구조 파악이 비교적 용이하며 다양한 공간을 형성하고 있음. 순환형동선체계로서 도로의 감소와 공동시설용지의 증가를 통해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일수 있음. 마을쉼터를 중심으로 공동시설을 집중배치하고 체계화시키도록 계획함. 보행자도로와 가로녹지대(type A) 등을 도입하여 보행자 중심의 가로를 조성. 마을입구에 마을진입광장을 조성해 마을 상징공간으로서 기능하도록 고려함.

* :1) 용문지구 기본계획(농어촌진흥공사,1993)에서는 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실제 사업추진과정에서 공동주차장으로 변경된 부지를 공동주차장으로 산정하였음.

마을쉼터 등의 공동공간에 기초하여 농촌문화마을 공간구조를 구상하여 계획초기부터 공동공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체계화하였다. 이때 '25호 주거군'에서의 공동휴식공간을 공간구조구상을 위한 기본계획단위(basic planning unit)로서 설정하였으며, 마을공간계획 측면에서 6호 주거군을 기본생활공간단위인 핵공간(核空間)으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용문지구에서 공공휴식공간(주거군마당)을 '25호 주거군'의 휴식공간(정자목공간)과 차량의 주택 진출입 및 회전 기능을 모두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2) 용문지구 대안계획 형성단계에서 전원농촌마을 이미지의 구축을 위해 공동휴식공간과 마을쉼터, 마을진입광장, 가로녹지대, 생물타리 등의 자연재료를 이용한 담장 등이 계획요소로서 고려되고, 마을순환산책로와 일조를 고려한 주택배치, 투수성 포장 등이 기존 역사문화, 생태자원의 활용을 위해 도입되었다. 주거군마당인 공동휴식공간과 마

을쉼터 등으로 공동시설을 체계화하고 이의 이용자 접근성과 기능강화를 위해 보행자도로로 서로 연계되도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용문지구 대안계획의 공간계획개념들은 앞으로의 농촌문화마을 공간계획에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용문지구 기존계획(문화마을 조성사업 계획)과 비교하여 본 연구의 대안계획은 방식순환형 동선체계와 체계적인 공공공간의 설치 및 접근성 강화, 보행자도로 도입 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부지내 도로율을 낮추면서 공공시설면적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농촌문화마을 주거환경의 질(質)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계획의 형성이 필요하고, 각 대안계획의 비교평가를 통해 최적대안 형성기법이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려한 친환경적 생태마을(eco-village)의 적극적인 도입과 적용도 요구되어진다.

參 考 文 獻

1. 농어촌진흥공사(1994) 농촌마을 및 주택기본설계 현상공모 당선작품집 (마을편).
2. 농어촌진흥공사, 양평군(1993) 용문지구 집단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3. 농어촌진흥공사(1997) 문화마을 조성사업 종합평가.
4. 농촌생활연구소(1996) 농촌주택과 마을의 주거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2차년도 계속보고서.
5. 농촌생활연구소(1997) 농촌주택과 마을의 주거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3차년도 완결보고서.
6. 박시현 外(1995)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어촌마을 정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양병이(1995) '지속가능한 설계(Sustainable Design).' 환경농촌 33권 : 161-182.
8. 양평군(1991)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계획서.
9. 이상문(1996) '독일의 생태문화적 마을재정비(Dorferneuerung)에 관한 고찰.' 한국농촌계획학회지 2(1) : 57-68.
10. 이재근(1995) '농촌문화마을 조성계획과 사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1) : 75-87.
11. 임승빈, 조순재, 박창석(1995a) '문화(집단)마을과 기존농촌마을의 비교·평가에 관한 연구 : 월암1리와 우항2리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1) : 49-64.
12. 임승빈, 조순재, 박창석(1995b) '취락구조 개선마을(신촌형)의 주민의식 및 공간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2) : 53-66.
13. 임승빈, 조순재, 박창석(1996) '농촌마을 계획·정비를 위한 농촌마을모델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지 2(2) : 57-66.
14. 조순재, 임승빈, 오희영(1996) '농촌마을 공동시설 개선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지 2(2) : 37-44.
15. 황병천(1996) 신농촌 개발의 효율적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